

이 冊에서 저자는 안정감과 성실 그리고 의의를 추구하는 청소년들에게 종교의 중대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규정된, 부정적인 윤리관이 아니고 창의성 있는 윤리관, 도덕적이면서 실로 종교적 윤리관을 제시해 주려고 노력한다.

신학과 종교와 심리학의 배경을 저자 자신의 임상 경험과 정신 의학의 이론적 지식에 가미한 수준 높은 책으로 생각된다. 개혁주의적 관점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양심과 죄책감을 전문 지식으로서 분석하며 그 실제성을 제시한 점에서 윤리관의 바벨탑 언어의 혼잡으로 방향을 모색하는 청소년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양서이며, 정신 위생이나 심리 치료법이나 상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나 교회 목사들에게 필독을 권하고 싶은 교양서이다.

## Legitimationsprobleme im Spätkapitalismus

(후기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법적 타당성 문제)

Jürgen Habermas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1973)

이 보 민

(고신대학 조교수·기독교 윤리학)

Jürgen Habermas는 1929년 Gumberbach에서 태어나 Bonn에서 공부했으며 1956년 Frankfurt Institut für Sozialforschung에 Adorno의 조수로 일하기 시작했다. 사회학을 철학적인 근거에서 연구하는 학자로서 소위 신마르크스주의의 중견 기수로 활약하고 있다. 후기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서구 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 이론을 특별히 본서에서 제시한다.

우선 그는 이 책에서 후기 자본주의의 제도적 또는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후기 자본주의(Spätkapitalismus)란 국가적으로 통제되는 자본주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속에서는 사회적인 발전이 모순스럽고 위기스럽게 나타난다.

그가 말하고 있는 '위기스럽다' 또는 '위기'(Krise)라는 표현은 개인으로서의 주관이 그의 주체성을 잃어 버리는 것을 뜻하며 그 위기의 해소는 바로 그런 억압된 주관에게 해방을 준다는 뜻이 되겠다. 또한 사회 제도에서의 위기란 뜻은 사회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또 그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말로서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제도의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만큼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허용 안 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가 보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란 자본주의는 그 속에 엄연한 계급 간의 상호 대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계급 간의 상호 대치가 자본주의 사회 형성에 필연적인 것인데 그 상호 대치를 구성원들이 의식하지 못할 때는 상호간의 투쟁(Konflikt)이 잠재적인 것이 되어져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한편 상호 대치를 억지로 해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때에는 상호의 대화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단순한 경제 체제는 그것의 문제가 바로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되어 버린다는 데에 그것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간의 상호 대립은 개개 인간끼리의 상호 대립의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들이 상호 주관적인 대화로써, 즉 상대적으로 그 대립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형편을 파괴시킨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표현들이 전통적 의미의 자본주의에 관한 것이라면 후기 자본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조직된 자본주의요, 경쟁 자본주의가 아닌 통제된 자본주의라고 할 것이다. 시장 메카니즘을 국가가 간여한다고 하겠다. 이런 후기 자본주의의 특징은 국가가 차츰 우주 산업과 같은 막대한 기술,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맡게 된다는 것이

고 또 국가가 행정적으로 경제 제도에 나타나는 많은 요구를 채워 준다는 것이다. 우선 국가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국제적인 경제 블록을 형성하거나 '제국주의'적인 보상을 통해 국가 간의 무역에서 유리하게 만든다든지 국가가 소비를 창출하여(무기나 우주 항공기 등과 같은) 경제를 돕기도 하고 시장 자율적인 측면에서 낙후된 영역에 자본을 투입한다든지 각종 시설, 학교나 교통 또는 유통 시설을 원활히 한다든지 하는 일로써 국가는 행정적으로 경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그뿐 아니라 후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외형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적인 과정을 국민에게 보임으로써 국가의 행정적인 결정들이 오히려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소위 법적 타당성(Legitimation)의 과정을 통해서 대중의 일반적인 동기를 창출해 내서 내용적으로 대중으로 하여금 국가에 충성케 하여 국민 대중의 참여를 피하게 한다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비정치화되는 공개성 속에서의 법적 타당성은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정치 참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 제도적인 보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그 보상이란 돈 또는 노동 자유 시간, 사회 보장 등의 형태의 것임). 이와같이 대중으로 하여금 탈정치적이 되도록 하기 위한 법적 타당성의 장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 후기 자본주의라고 한다. 또 후기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 계층 구조에 새로운 특징을 지니게 된다. 자본주의 이전 시대에서는 지배자의 group이 분명히 밝혀지는데 반해 전통적인 자본주의에서는 그 사회의 지배자가 무명의 지배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배자의 무명화(Anonymisierung)가 사회적인 무명화가 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 계층 간의 구분이 불명해진다고 하겠다. 사회적인 계급의 의식이 흐려지고 계급 간의 타협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자본주의에서의 계층과는 서로 맞지 아니하

는 여러 group(학생, 소비자, 학부모, 노인 등)이 생겨남으로 본래적인 계층 의식을 흐리게 해 놓았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특징을 지니는 후기 자본주의는 본래 자본주의가 안고 있던 계급 간의 대립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로 그 문제의 성격을 바꿀 만한 것인가? 자본주의의 위기가 다른 방향으로 옮겨진 정도는 아닌가? 하버마스는 후기 자본주의가 많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기의 극복은 다른 형태의 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 새로운 위기란 무엇일까?

그것을 분석하기 전에 고도 성장의 후기 자본주의의 성장에서 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자. 후기 자본주의는 국가가 자본·기술 집약적인 산업 관리를 행하므로 그 산업 성장에 있어서 팔목할 성과를 거둔다. 그에 따라서 우선 자연의 한계라고 하는 것에 봉착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원의 고갈이요, 고도 산업에서 나오는 유독성 폐기물을 처분할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고도의 조직적인 복잡성을 가진 고도 성장적 후기 자본주의 제도 속에서는 그 제도와 개인적인 동기와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되며 인간끼리의 진정한 대화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하겠다. 또한 고도 성장 후기 자본주의에서는 범세계적 체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기술 선진적인 핵무기의 보유가 기존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고 하겠다.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고도 성장의 후기 자본주의 내의 구조적이며, 제도적인 요소를 하버마스는 계속해서 분석해 본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의 위기가 있다. 그것은 후기 자본주의 역시 전통적인 경제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야기되는 이익 분배의 불균형은 상존하며 국가가 이런 불균형을 증재는 하지만 완전한 보상 내지는 해소를 못해 주므로 자칫 경제적인 대립은 마침내 정치적인 대립이 될 가능성이 항상 크다. 아뭏든 경제를 위해서는 후기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음의 일들을 해야 한다. 즉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의 전제 조건들인 사유 재산과 계약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생산 활동의 과정에서 약자를 도울 수가 있어야 하며 특히 자본의 축적 과정에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Mehrwert)의 제도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노동자들의 능력을 높여서 생산성을 올리고 기술 개발을 촉진시켜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가 행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노동 임금을 준정치적인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 일이다. 국가가 개입하여 자본주의와 노동 조합 간의 타결을 유도해야 하며 더이상 노동 임금은 시장 기능에 맡겨 둘 수가 없다. 임금을 정치적 차원에서 타결하며 노동자와 자본주의 사이의 대립을 정치적으로 완화시키게 되는데 정부가 경제에 이런 식으로 개입할 때 국가 기관의 법적 타당성을 제시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즉 국가는 그의 경제적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민주주의와 일반적인 가치 체계에 부합되어 대중의 충성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런 법적 타당성의 압력은 비정치적인 공개성의 구조를 통해 약간은 해소되지만 그러나 언제나 남아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국가는 국가 전체주의적 자본주의적인 이익이 개개 자본주의적인 분파들 간의 상호 배치되는 이익들과 또 여러 국민적 단체의 공동 이익적인 것들과 언제나 경쟁을 하게 되는 사실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을 위해 국가 기관은 동시에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첫째는 요구되는 세금을 이익과 수입을 제거하지 않도록 징수해서 또 그 세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위기스러운 성장 장애훈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두 번째 과제로서는 세금의 선택적인 징수, 또 그것의 사용에 있어서 법적 타당성에 대한 필요성에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제1의 과제를 국가가 소홀히 하면 합리성에 결함이 생겨 위기적인 요소가 나타나게 되며 반대로 국가가

제2의 과제를 등한히 하면 법적 타당성에 있어서의 결함으로 인한 위기에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 기관이 얼마나 경제적인 분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도록 목적 의식과 합리적인 기능을 지니고 행정적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제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자본 집중 역시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볼 때 국가가 합리성 고취를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알 수 있다.

따라서 후기 자본주의에서는 항상 이와 같은 합리성 결함에 따른 위기가 상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동시에 국가 형성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문제가 위기의 요소로 항상 남는다. 사실 이 법적 타당성의 문제는 국가가 경제를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인 근거들이 그것 자체로 또한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데서 빚어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사실 법적 타당성의 위기란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에 일치하는 보상에 대한 요구가 그 제도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가치보다 빨리 일어나며 따라서 제도에 일치하는 보상에 대해 만족 못 할 기대치가 생길 때 야기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과중한 기대치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정부나 정권을 위한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그와 같은 기대를 갖도록 만들며 따라서 그것은 과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서 항상 위기가 있게 된다(그 법적인 타당성에 대한 요구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해소하려고 하지만 불충분하다). 다른 말로 하면 법적 타당성의 위기는 제도에 따른 기대가 생겼으나 그 제도를 통한 보상이 물질적으로나 기타의 방법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생기는 것으로 사람들은 국가가 무슨 법적 근거를 갖느냐를 묻게 되는 것이다. 이런 법적 타당성의 위기는 국가가 부여하는 동기에도 작용되어 나타나서 또 하나의 위기인 동기에 있어서의 위기(Motivationskrise)를 야기시킨다고 하겠다. 국가가 항상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했기 때문에 개인은 매사에 보상

만을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면 모든 국민은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 제도적인 보상을 요구하게 되며 그로 인해 교육은 보편적인 것이 되면서 그 교육은 오히려 정당한 사회적인 보상을 못 받는 것이 되므로 국가가 처음 국민에게 부여한 보상을 위한 동기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 활동의 성취에는 항상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있는데 전자는 노동 시장의 확대에 의해 줄어드는 데 반해(차츰 정신 노동 역시 시장적 요구에 따른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외적 동기는 노동 시장 확립으로 인한 고도 수입으로 인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것은 인간의 개인적 동기가 국가가 제공하는 여건 때문에 위기에 빠지게 되는 예라고 하겠다.

이상으로 하버마스는 후기 자본주의 제도에서의 위기성을 분석한 후에 특히 법적 타당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Weber가 제시한 법적 타당성의 문제를 다룬다. Weber에 따르면 단지 물질적이거나 가치 합리적인 동기에서 그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권력은 결코 없다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그의 타당성에 대한 신용을 불러 일으키고자 한다. 타당성에 대한 국민의 신용이 내재적인 진리와 관계가 없는 순전한 경험적인 것이라면 그 신용의 문제는 순수 심리적인 것으로서 권력이 형식적인 법적 절차를 취했다는 것으로만 충분할 것이다. 그에 반해 권력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신용이 내재적인 진리와 관계되는 경우는 도대체 무엇이 근거가 되어 권력의 법적 타당성이 힘을 발휘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다. 법적 타당성을 순전히 경험적, 심리적으로 보는 것은 법의 정당성을 단순히 결정(Entscheidung)에 따른 것으로 보는 데서 기인된 것이다. 소위 의회 민주주의가 이것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반면 법의 결정이 실제 어떤 norm에 근거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객관적 진리에 따른 법적 타당성이 더 나은 근거를 갖는 것으로 보는 Weber의 입장을 하버마스도 따르는 듯하다.

즉 계약이란 계약 체결자들이 서로 인정하는 norm위에 기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이 상호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대화의 단일체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대화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실재할 때만 가능할 것이다. 합리적으로 동기되어지는 행위적 norm에 대한 의미적 요구의 인정(Anerkennung)은 동기의 대화적 경험에서 출발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그 '대화적'(diskursiv)이란 경험에서 자유하고 행위적인 부담을 벗은 Kommunikation의 형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대화는 결국 하나의 이성적인 의지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모두가 이성적으로 일반화된 Interesse를 인정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Interesse(관심)를 가질 때 즉 모두가 원하는 것이 될 때 그 때 억지라고 하는 것이 없는 일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상호 일치는 과격이 아닌 방법으로 (적합히) 해석되는 즉 일반화가 될 수 있는 관심에 기초한다고 하겠다. norm이 일반화될 수 있는 관심(Interesse)을 표현한다면 그 norm은 이성적인 일치(Vernünftiger Konsensus) 위에 근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norm이 일반화되는 관심을 규정 못 할 때에는 바로 그 norm은 무력(gewalt)에 기초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무력이란 정치 권력으로서 그 정치 권력이 적당히 분배되어 균형을 이룸으로 근원적인 대화를 통해 규정되지 못하는 관심을 규정하게 된다. 이런 권력적인 타협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그런 타협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소위 법적 타당성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혼돈과 우연을 피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심을 확립시키는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진 의미 체계가 곧 권력 지배의 타당성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의미 체계의 구축은 소위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과학 기술을 동원해서 또는 사회적 모든 요소를 동원해서 이루어진다. 즉 후기 자본주의적인 민주주의는 참된 참여의

기초가 될 대화를 통하지 아니하고, 그보다는 엘리트들이 타협적으로 이루는 그와 같은 의미 체계를 기초하여 그 법적 타당성을 세운다고 할 것이다. 개인적 인간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관심에 따른 상호 대화가 없어질 때 개인의 이성은 무시되고 事物化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진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에 후기 자본주의는 그 법적 타당성의 근거를 인간의 참여의 기초가 되는 대화가 아닌 권력의 타협적인 분배, 즉 형식적 민주주의를 통해 찾으려고 한 이유 때문에 대단히 否定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결론적인 주장이다.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는 이 책의 전반에서 후기 자본주의의 위기적인 요소를 분석했고 후반에서는 Weber가 생각하기 시작한 법적 타당성 문제를 나름대로 발전시켜 독자로 하여금 그 이론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문제를 보고 비판할 수 있도록 유도한 듯하다. 이 책은 그 규모에 비해 극히 난해한 책이라고 하겠으나 현재 유행하는 신마르크스주의 사상의 일면을 보이는 책이므로 음미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요컨대, 마르크스주의적인 사회 계층의 측면에서의 공격을 받아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한 후기 자본주의는 사회 계층적인 소외가 아닌 개인적 인간의 본연에 나타나는 소외를 오히려 야기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그 소외란 인간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Interesse(관심)에 대해 그의 이성 활동을 자연스럽게 발휘하는 바\*인 소위 근본적인 '대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인간의 원초적인 관심을 권력적 차원에서 억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와 같은 입장은 철저히 그 자신이 확립한 인간관에서

\*Habermas는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에서 인식과 관심(Erkenntnis und Interesse)이 일치되는 단일을 이룬다고 본다. 그로 인해 그는 사실성과 가치의 2원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듯하다. 그의 저서 Erkenntnis und Interesse 참조!

나오는 것일 뿐이다. 그가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를 예리하게 파헤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와 같은 문제를 갖는 자본주의의 제도 때문에 인간에게 본질적인 소외가 생긴다는 것은 순전히 그 자신이 선택한 인간관 때문에 생긴 결론으로 보아야 한다. 즉 그의 인간관이란 원초적인 관심에 의한 인간이라는 것으로 그런 종류의 관심(Interesse)은 어떤 의미에서도 제도화 또는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化하여 질 수 없는 것이다. 제도화란 그 자체가 그가 말하는 소위 권력 분배를 전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의 인간관은 인간으로 하여금 순수 비제도화된 형편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든다고 하겠다. 인간은 물론 그 자체 개인적인 존재다. 그러나 그 인간은 외부적인 제도적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위 '억압될 수' 있는 관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외부적 관심도 초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내면성을 가졌기 때문에 비로소 개인적 인간이 된다는 것을 하버마스는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기독교적 인간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해도 세속 철학적인 영역에서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제도적인 '억압'을 받을 때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면 역설적으로 어떤 형태의 제도라도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인데(물론,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 제도를) 인간의 복지를 나름대로 구가하는 비교적 타당성 있는 서구적인 복지 자본주의를 아무런 대안없이 비판만 하는 것은 옳은 입장이 못 된다고 하겠다. 전혀 제도적인 장치를 갖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면 모르려니와...

## A New Face for the Church

by Lawrence O. Richards

김 병 원

(고신대학 조교수·실천 신학)

Richards 박사가 저술한 「교회를 위한 새 양상」이란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어 본 책이다. 저자는 교회가 당하는 문제들을 전통적인 방법을 떠난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두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쇄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연구한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

제일장은 저자의 교회관, 제이장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교회의 특성, 제삼장은 교인들의 肢교회 생활, 제사장은 저자가 본 교회의 미래상이다.

제일장에서 강조한 내용은 관계(relationship)이다.